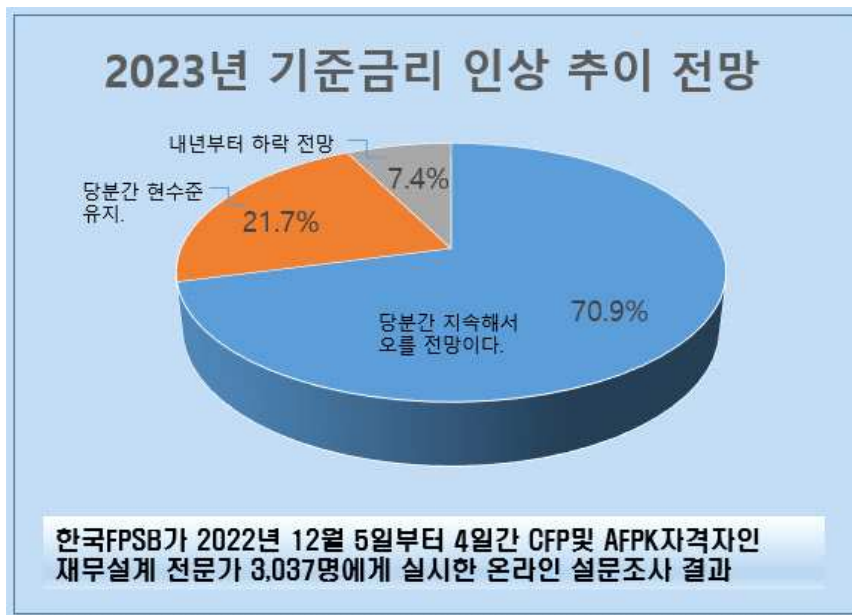


	보 도 자 료		
	보도일	2022.12.16.(금)	
	배포일	2022.12.16.(금)	
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17층 한국FPSB 김지옥 팀장 / 02-3276-7612, jwkim@fpsbkorea.org gio0703@gmail.com			

**제목: 재무설계 전문가(CFP와 AFPK)가 바라본 2023년 경기전망
“돈맥경화”**

- 재무설계 전문가의 사전 진단 및 신속한 처방이 필요하다.-



- 전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, 한국 FPSB(회장 김용환)은 현직 재무설계사를 대상으로 2023년 경기전망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.
- 지난 6일부터 4일간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전세계 27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재무설계사인 CFP(CERTIFIED FINANCIAL PLANNER) 국제재무설계사와 재무설계사 AFPK자격자 총 3,307명의 참여하였다.

- 조사결과, 기준금리 추이는 ‘당분간 지속해서 오를 전망이다’ (70.9%)가 압도적으로 우세했고, ‘당분간은 현 수준 유지’ (21.7%), 내년부터 하락 전망 (7.4%)의 답변은 소수였다. 현재 3.25%인 기준금리는 2023년에 최고 4.23%까지 오른 후 하향국면에 진입할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, 이는 국내외 전문연구기관의 전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금리인상의 결과는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는데, 작년 동기와 비교하여 이자비용은 ‘20%~50% 정도 증가했다’ (76.6%)라고 응답했고, ‘50% 이상이 증가되었다’ (15.1%)라는 답변도 나왔다.
- 금리는 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실물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당분간 계획적인 가계지출 관리 및 투자에 있어서도 금리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, 특히, 정책금융 대상이 아닌 서민가계는 전문가의 재무상담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.
- 주택 가격은 ‘2023년말까지 지속 하락 전망’ (55.6%) 우세 속에 ‘내년 하반기에 회복 전망’ (34%)도 나왔는데, 내년도 국내 금리변동 추이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국제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유연한 재무설계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.

2023년 주택가격 전망

• 내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전망	55.6%
•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하다가 하반기에 회복 시작	34.0%
• 현 수준에서 2024년까지 횡보	9.8%

- 무주택자의 실거주 주택 구입시기로는 ‘내년 하반기’ (32.4%)가 많았으나, ‘2025년 이후’ (15%)라는 응답 등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. 주택구입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이자부담 여력과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의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,
- 내년이후 금융상품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‘금리형 상품’ (64.7%) 중심의 유동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, 장기적으로는 경기 상승에 대비한 ‘주식형 상

품' (61.3%)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. 2023년에는 부동산이나 금 등 실물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을 추천하였고 미래를 대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주요하다고 답변했다.

- 내년도 가계 재무설계의 핵심은 '대출 상환' (40.2%), '유동성 확보' (34.4%), '가계수지 흑자 관리' (14.9%)라고 응답했으며, 가계재무의 기초체력 보강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시기로 재무설계 전문가를 통한 재무상황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이 필요한 때라는 해법을 내렸다.

2023년 가계 재무설계의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

• 대출상환 및 관리	40.2%
• 유동성 확보	34.4%
• 가계수지 흑자 관리	14.9%
• 투자수익률 관리	6.7%

-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재무설계 인지도는 20% 미만 정도 수준으로 다소 낮은 편이나, 재무설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이는 한국 FPSB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와 함께 재무설계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내년도부터 CFP 및 AFPK 자격인증자수가 재상승 할 것으로 보는 견해와 같다.
- 한편, 국제FPSB의 제휴국인 호주 FPA가 지난 9월 40세 이상의 호주인 1,051명을 대상으로 컨설팅업체인 마이마빈스가 실시한 '재무상담의 가치' 연구에 따르면, 재무설계사로부터 재무상담을 받는 소비자는 ▲'안락한 노후생활에 대한 자신감 증대' (47%), ▲'재정적 안녕감(financial wellbeing) 증진' (40%), ▲'재무적 의사결정 개선' (37%) 등 재무상담사의 상담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가계형편이 더욱 나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. 또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CFP 자격인증자로부터 재무상담을 받는 소비자는 재무상황이 더욱 개선되었다고 밝힌바 있다.

* 한국FPSB는 2004년에 설립한 국제FPSB의 제휴국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. 인증자격으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재무설계사인 CFP(CERTIFIED FINANCIAL PLANNER)와 재무설계사인 AFPK(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)

가 있다. 2021년 말 기준, 전세계 CFP 자격인증자는 27개국에 20만명에 이르고 있다. 국내 CFP 자격인증자 수는 3,307명이고 AFPK 자격인증자 수는 17,655명이다. (2022년 11월말 기준)

[참조자료1] 설문조사 결과 (별첨)

[참조자료2] 금융위기 때 마다 증가하는 재무설계 전문가



끝.